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도입, 사회·환경적 책임 법령상 의무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 산업 분야에 관한 법령을 무리하게 빈번히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에너지 자원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이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정부령 2012년 제47호가 제정됐다. 이 정부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회사법 제74조 제4항의 이행 법령 형식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대상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이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는 199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수익의 2% 상당을 회사 내에 적립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러한 의무 수행을 감독할 국가 기관(CSR Committee)을 설립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매 6개월마다 의무 이행 사항을 감독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 시스템을 두고 있다...(중략)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 [제869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